

KISTEP 통계 브리프 2008-9호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

KISTEP 정보분석팀

OECD 국가의 생산성과 그 증가율을 분석한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08」의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함

1. 개요

-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에 관한 사항은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임
 - 이에 국제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OECD Productivity Database¹⁾를 개발하게 됨
 - 여기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과 생산성 측정을 개선시키고 것도 포함함
-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08」에서는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노동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unit labour cost)과의 관계 등으로 분석
 - 본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생산성을 노동 생산성 수준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주요 내용

□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 수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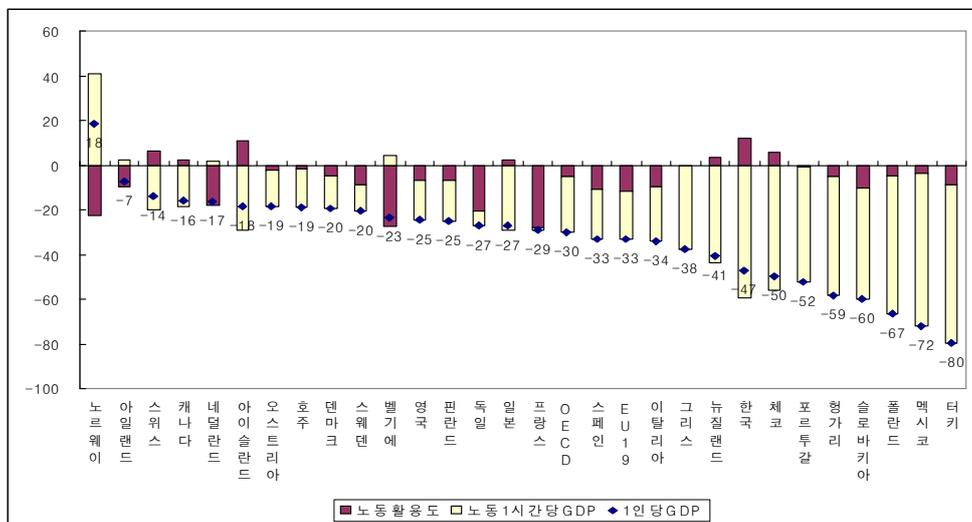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소득²⁾격차를 노동 생산성으로 분석
 - 1인당 GDP를 노동 생산성과 노동 활용도로 나누어 분석
 - ※ $GDP/인 = (GDP/노동시간) \times (노동시간/인)$
 - ※ **(GDP/노동시간)은 노동 생산성으로, (노동시간/인)은 노동 활용도로 정의함**
 -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약 47%정도 뒤떨어져 있으며, 노동활용도는 미국보다 12% 높으나 노동생산성은 59%나 낮음

1) www.oecd.org/statistics/productivity에서 이용 가능

2)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화폐단위는 PPP US \$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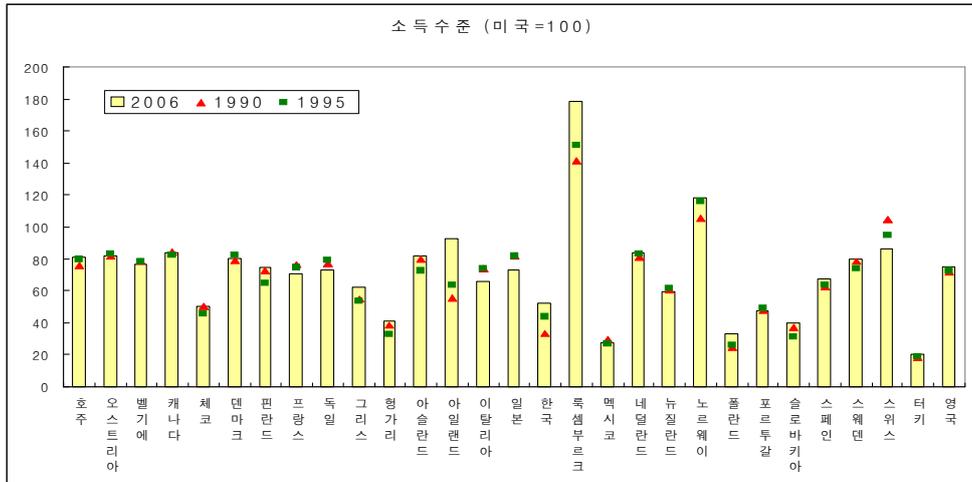
-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 생산성 격차보다는 소득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 활용도가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 노동 활용도가 낮은 것은 노동시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의 경우 높은 실업률 등에 의한 것이기도 함
 -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성은 미국에 앞서 있으나 소득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그림 1> 미국과의 소득 및 노동 생산성 격차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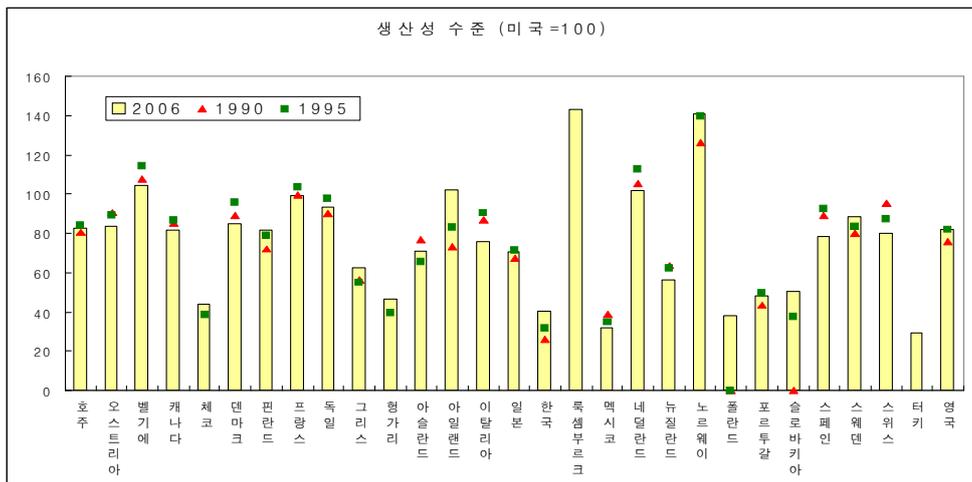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득과 노동 생산성은 점차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보다 크게 나타남
 - ※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소득과 노동 생산성 격차
 - 소득(미국=100) : 33%(1990) → 44%(1995) → 53%(2006)
 - 노동생산성(미국=100) : 26%(1990) → 32%(1995) → 41%(2006)
 - 유럽의 선진국들은 95년에 비하여 미국과의 소득 격차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그림 2> 미국 대비 소득 수준(1인당 GDP, 미국=100)



<그림 3> 미국 대비 노동 생산성 수준(노동 1시간당 GDP, 미국=100)



-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임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에 비해 종업원 250인 이상 기업의 생산성은 약 1.9배인 반면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은 절반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성의 격차가 심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역시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으나 덴마크, 슬로바키아 등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종업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기도 함)

**<표 1> OECD 국가의 종업원 규모별 생산성
(제조업 전체=100,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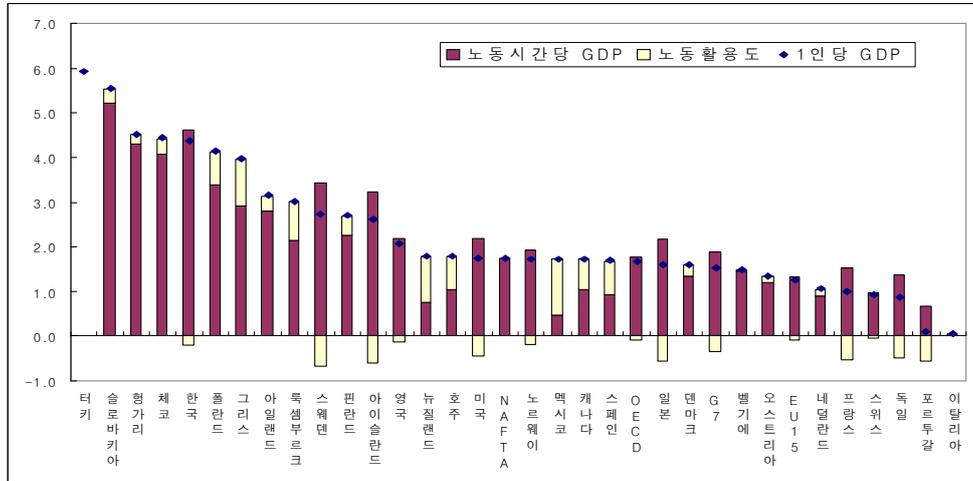
	1-9인	10-19인	20-49인	50-249인	250인 이상
호주	68	61.3	73.5	86.4	139.5
오스트리아	58.7	64.8	73.6	92	126.5
벨기에	47.2	60.1	72.5	90.9	132
체코	56.1	66.2	77.6	90.5	130.6
덴마크	78	72.9	83	93.4	116.7
핀란드	72.5	68.3	69.2	82.1	121.9
프랑스	59.1	73.3	81	86	126
독일	49.8	58.1	74.3	88.7	122.5
헝가리	29.7	47.3	55.2	73.6	156.3
아일랜드	30	28.1	31.6	67.8	154.7
이탈리아	54	81.6	99	122.1	146.2
일본	42.9	55.4	65.8	97.8	157.8
한국	41.3	50.9	59.3	88	189.8
룩셈부르크	68	61.2	65	90.9	113.2
멕시코	21.9	47.4	58.2	89	141.7
네덜란드	46.2	73.7	76.2	94	146.5
노르웨이	64.9	75.1	84.7	98.7	123.9
폴란드	35	58.2	60.6	75.9	162.1
포르투갈	49.3	66.6	79.8	105.4	191.6
슬로바키아	90	72.7	71.9	76.7	117.6
스페인	53.4	67.7	77.6	101.4	165.5
스웨덴	73.7	94.4	92.8	92.6	113.6
터키		32.7	46.7	69.9	130.6
영국	74.5	74.4	81.4	90.1	122
미국	54.1	46.8	53.8	68.3	129.8

□ OECD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 분석

- 대부분 국가는 1인당 GDP의 증가(2001-2006년)에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많은 부분 기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동 기간 연평균 4.6% 증가하였으나 노동활용도는 연평균 0.2% 감소하여 소득의 증가보다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더 빠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의 증가에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많은 기여를 한 반면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등은 노동 활용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함

3) 그러나 이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제조업을 2-digit 또는 3-digit의 산업 분류로 나누어 보면 산업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림 4> 1인당 GDP 증가에 생산성과 노동활용도의 기여 정도 (2001-20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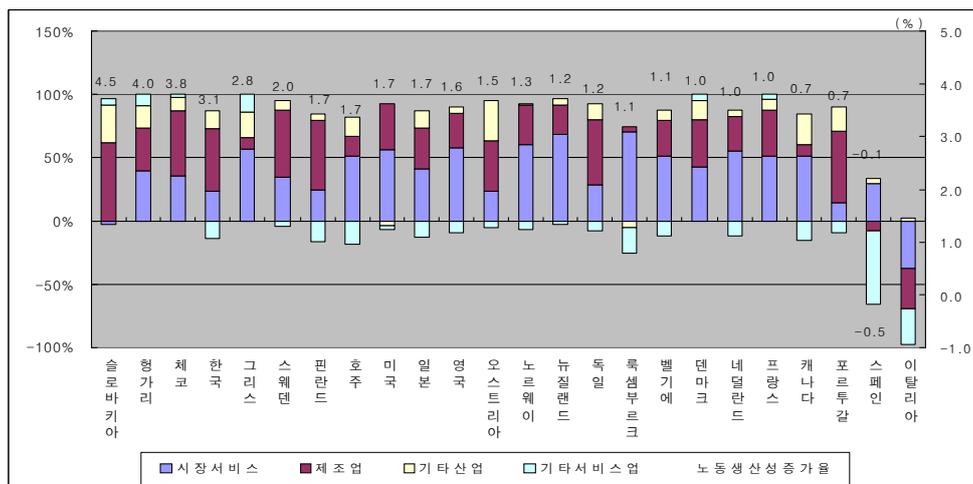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생산성 증가에 제조업이 가장 크게 기여함

※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여율4):

시장서비스업 24%, 제조업 49%, 기타서비스업 -13%, 농림·어·광업 14%

- 생산성의 증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장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기여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장서비스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슬로바키아, 체코, 핀란드, 독일 등은 제조업이 가장 크게 기여함

<그림 5>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율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 (2000-20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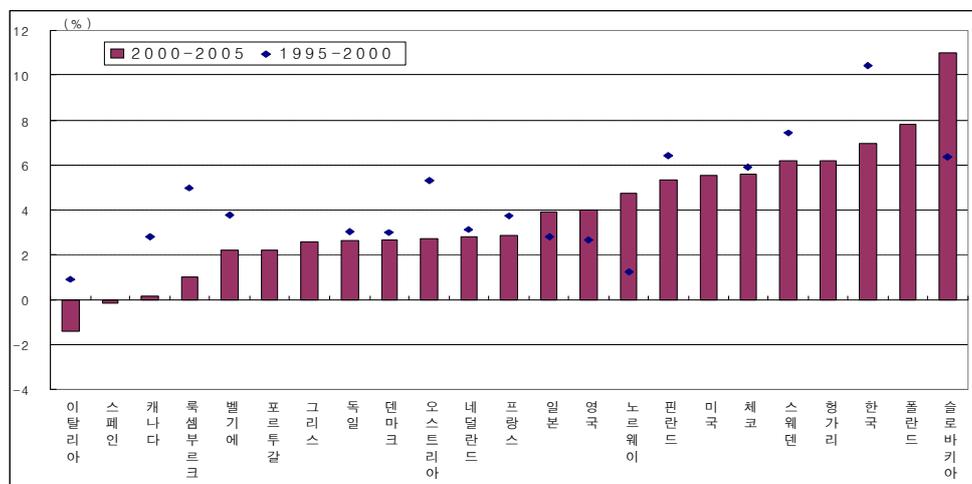


* 막대위의 숫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임

4) 기여율의 절대값의 합이 100이 되게 조정됨(생산성이 감소된 경우는 음수임). 자세한 내용은 OECD Productivity Manual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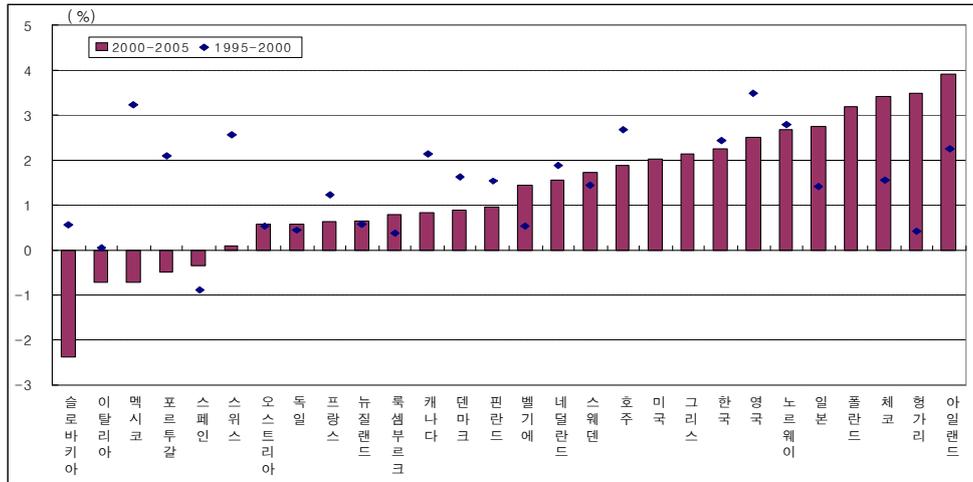
- 대부분 OECD 국가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는 둔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5-2000년 동안 연평균 10.4% 증가하였으나 2000-2005년 동안에는 연평균 6.9%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선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프랑스, 독일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증가세 주춤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급격히 생산성이 증가함

<그림 6>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 OECD 국가들의 시장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시장서비스업은 1995-2000년 사이 연평균 2.4% 증가하다 2000-2005년에는 연평균 2.3% 증가하여 생산성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제조업보다는 낮은 수준임
 - 아일랜드,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연평균 4% 이상 증가하여 시장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멕시코 등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음

<그림 6> 시장서비스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노동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음
 - 소득수준보다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제조업에 비해 세계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서비스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
 -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의 활용도 제고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함
- 생산력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인 자본, 요소 생산성 등에 대한 국제 비교 가능한 자료 산출 필요
 -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08」에서는 자본·요소 생산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어 있으나 한국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생산성 분석이 어려움
 -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본·요소 생산성 자료를 생성하고 OECD에 보고하여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료원 : OECD,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08

* 자료관련 문의 : 정보분석팀 (02-589-2949, 2892)